

광주일보

순천 전자고, 세팍타크로 '그랜드 슬램'

전국선수권·회장기 등을 4개 대회 석권

순천 전자고가 올해 열린 전국규모 4개 세팍타크로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순천 전자고는 지난 16~19일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 대회 여고부 단체전 더블(2인조)과 레구(3인조) 경기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여고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0년 창단한 순천 전자고 세팍타크로 팀은 지난 3월 전국 선수권 대회(레구 우승)를 비롯해 5월 제14회 전국 남녀 세팍타크로 종별대회(더블·레구 우승), 7월 제24회 회장기(레구·더블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순천전자고는 더블경기과 레구경기 결승에서 모두 경남 한일 전산여고 팀과 맞붙어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블경기는 강다현·박성경·황수현(이상 3년)이, 레구경기는 위지선(2년)·김우정·배채은(1년)까지 6명



올해 전국규모 4개 대회를 휩쓴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 황수현·김우정·배채은·강다현·박성경·위지선(왼쪽부터).

이 번갈아 가며 뛰었다.

대회결과 뛰어난 경기를 펼친 위지선이 대회 최우수 선수상, 김민석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윤덕 감독은 "올해 열린 전국 규모 4개 대회(7종목)를 모두 우승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면서 "중학시절에 축구와 육상, 합기도를 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1학년때부터 시합기회를 주 재미를 느끼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60일 가량 남은 제94회 인천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남도일보

전남 순천전자고 女세팍타크로 '전국 최강'

학생대회 레구·더블 우승 등 전국대회 석권



전남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부 세팍타크로팀(사진)이 전국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다.

순천전자고는 최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11회 전국 학생세팍타크로대회에 참가해 4인조전인 레구와 2인조전인 더블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강다현, 박성경, 황수현(이상 3년), 위지선(2년), 김우정, 배채은(이상 1년) 등으로 구성된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는 올해 열린 전국

규모대회에서 모두 정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달에 열린 제24회전국선수권대회에서 레구 우승을 거둔 순천전자고는 5월 제14회 전국 남·여 종별대회와 7월 제24회 장기대회에 레구·더블 우승을 거뒀다.

이번 전국학생대회에서도 레구·더블 우승으로 위지선은 최우수선수상을 김민석 순천전자고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전남일보

순천전자고, 학생 세팍타크로 우승

올들어 전국 대회 4개 석권

순천전자고등학교가 제11회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레구와 더블 두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전자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해 4개의 전국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윤덕 감독이 이끄는 순천전자고는 지난 19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여자 고등부 더블 결승에서 한일전산여고를 세트스코어 3-0(15-11 15-9 15-5)로 이겼다. 순천전자고는 지난 18일 열린 레구 종목에서도 결승에 올라 한일전산여고를 3-0(15-7 15-10 15-12)로 꺾고 우승했다.

순천전자고는 올해 제14회 전국남녀 세팍타크로종별대회(3월)와 제24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5월), 제24회 회장기 대회(7월)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여고부



제11회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 대회레구·더블 등 2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순천전자고 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국 최강임을 과시했다.

위지선(순천전자고2)은 여자 고등부 최우수선수로 뽑혔고, 김민석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윤덕 감독은 "앞으로 60일정도 남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 '無敵'

전국학생선수권 우승...올 전국대회 4개 석권

순천전자고 여고부 세팍타크로팀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창원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전국 4개 대회 모두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순천전자고 강다현·박성경·황수현(3년), 위지선(2년), 김우정·배채은(1년) 등 6명으로 구성된 세팍타크로팀은 결승에서 만난 한일전산여고를 3-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뛰어난 경기력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위지선(2년)은 최우수선

수상을 받았고, 김민석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윤덕 감독은 "앞으로 60일정도 남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전자고는 이번 세팍타크로 대회에 이어 지난 3월 제24회 전국선수권대회(레구 우승), 5월 제14회전국 남·여 종별대회(레구·더블 우승), 7월 제24회장기대회(레구·더블 우승)에서 우승해 전국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김기식 기자 pi21@kdaily.com